

치사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지금까지 불교는 우리민족과 함께 해왔으며, 정신문화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유구한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불교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큰 줄기를 이루어 왔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고 고려시대에 정점에 이르렀으며 조선조의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문화의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현존하는 대다수의 국보와 보물이 불교신앙의 산물임을 생각하면 불교가 우리민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문화 창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문화재는 곧 우리민족의 문화재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또 역사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문화재입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국보급, 보물급 유산의 대부분 불교의 예술 작품들이며 우리의 사상적, 정신문화적 내용의 근간 역시 불교에서 많은 자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문화재는 세월이 지날수록 수와 양이 늘어나고 소중함도 더해집니다. 따라서 보존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재산인 불교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聖寶 -조계종 국보-』의 발간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문화부장스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 را 표합니다.

2010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